

교정시설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Stress and the School Adjustment on the Ego-Resiliency of Juveniles in Correctional Facility

대구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김 연 순*

영남외국어대학

교 수 엄 인 숙**

Daegu Polytechnic College Univ.

Dept. of Social Welfare : Kim, Youn-Soon

YoungNam Foreign Language College

Dept. of Cultural Studies : Um, In-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tress and the school adjustment on the ego-resiliency of juvenile.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is 283, which makes it possible to do statistical inferences. As statistical method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10.0 is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riends part, among the four sub-factors of stress, affect negatively ego-resiliency. Second, interest about school life, among the three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affect positively ego-resiliency. Third, observation of school norm, among the three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affect negatively ego-resiliency.

Based of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how to elevate ego-resiliency of juvenile delinquencies.

▲주요어(Key Words) :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스트레스(stress),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I. 서 론

현대사회는 급격한 정보화, 사회화로 인해 가치관의 혼돈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내면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의 결과로 청소년 비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 심각한 사회

병리현상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비행청소년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적응이다. 실제 중·고등학생의 약 15%가 가출을 경험하고, 70%가 넘는 청소년들이 가출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한 조사 결과 나타났다(구본용, 2003),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중·고등학생의 숫자도 2001년 5만 5천여 명, 2002년 4만 3천여 명, 2003년 4만 1천여 명, 2004년 4만 2천여 명으로 평균 한 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2.0%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교육통계연보, 2006).

* 주 저 자 : 김연순 (E-mail : dustns4@hanmail.net)

** 교신저자 : 엄인숙 (E-mail : misopcc@hanamil.net)

특히, 청소년 비행의 경향은 본드, 가스, 마약과 같은 약물남용의 범람, 가정·학교 폭력 및 재범율 증가 등 갈수록 흉악화, 집단화 되고 있고(유홍준, 1999), 성관계 경험, 동거경험 등과 같은 일탈행동도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성경, 1999). 그러므로 청소년비행에 대한 선도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비행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성격과 관련된 심리적 개념에 주목하였다. 비행청소년과 같이 결손된 환경요인에서 오는 역경을 이겨내는 성격자원으로 자아탄력성이 있다(Klohn, 1996).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 특히 좌절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들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긴장,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 능력이 높기 때문에 낮은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탄력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조절 능력이 낮아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의 융통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Block & Kremen, 1996).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주요 변수로 스트레스를 들고 있다. 즉,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Tellegen, 1985, 이은미, 2001). 이외에도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로 학교생활적응이 있다. 이것 역시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에도 뛰어난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구자은, 2000; 이윤주·신지연, 2006). 그러나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일반인 혹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비행청소년 특히, 교정시설에 거주하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의 연구는 극히 미진한 상태이다.

인간의 자아탄력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아탄력성을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자아탄력성의 발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과 그 반대로 발현을 돕는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유형으로 정의하고 자아탄력성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시각이다(Masten, 2001).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전자의 시각에 두고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학생들과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학교생활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미 학교생활적응에는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부적응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탄력성 높게 지닌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이나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비행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비행을 최소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행변수를 규명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교정시설에 거주하는 비행청소년이다.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미 그들은 이전의 비행행위로 인해 보호시설에 감호된 상태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면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비행청소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선행변수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을 설정하고 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한다. 둘째, 비행청소년이 지각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고 셋째,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청소년과 관련한 정부 혹은 민간단체에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그들의 비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정시설 청소년

1) 비행청소년의 개념

비행이라는 개념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용어도 아니고 형사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념으로 반드시 소년에 국한하고 일반형사사법을 떠나서 사용하여야 한다(원종익, 1982).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소년법(제2조) 및 민법(제4조)에서는 20세 미만을 소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형법(제9조)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 아동복지법(제2조)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3세 미만을 연소자로 구분하고 있다.

소년법 제 4조 1항에 의한 비행청소년의 형태를 보면, 첫째, 범죄소년이다. 이는 14세 이상 20세미만인 소년의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다. 둘째, 촉법소년이다. 이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다. 셋째, 우범소년이다. 이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을 지녔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니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넷째, 불량행위 소년이다. 이는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폭력, 휴기소지, 싸움, 부녀자 희롱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자를 말한다. 다섯째, 요보호소년이다. 이는 비행소년은 아니나 학대, 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은 일반적으로 보호주의 이념에 따라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처리된다. 보호사건의 대상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관찰 혹은 소년원 송치가 대표적이다. 또한 소년의 형사사건은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사건의 사례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며, 형사법원 판사가 해당 범죄에 대한 재판결과(사형, 징역, 금고 등)를 판결하고 이에 따라 소년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된다. 소년교도소의 경우 형사처분의 결과에 따른 구속에 해당되며,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과는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소년법 제 32조 제 5항).

2) 소년원

소년원은 소년법원이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행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비행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처우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호소년의 수용기간은 비행소년 심리기준인 요보호성이 제거되어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요보호성과 개선여부를 묻지 않고 퇴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최장나이는 22세라 할 수 있다. 또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가(假)퇴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은 수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원은 2000년에 안산종합예술학교를 시작으로 일반 학교와 동일한 명칭으로 개명되었다. 또한 일반학교의 획일적이고 보편화된 틀을 벗어나 보호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체육, 예능, 관광, 정보통신, 정보산업 등과 같은 특성화된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 교과과목은 일반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에 준용하여 주 38시간 이내의 시간을 수업하며, 각 급 학교 학령 초과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을 취득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란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과 강인성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성격을 말한다(Cicchetti & Cohen, 1995; Ramanaiah et al., 1999).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좌절적이고 스트레스 혹은 역경 등 위협적 환경에서도 행동 및 정서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학적 개념이다(Block & Kremen, 1996; Block & Gjerde, 1990).

자아탄력성이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Klohn, 1996; Rutter, 1999). 또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긴장,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 높기 때문에 낮은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데 반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아탄력성은 학대, 빈곤, 결혼가정 등 결혼된 환경요인에서 오는 역경을 이겨내는 성격자원으로서 기능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좌절보다는 극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Block & Block, 1980; Klohn, 1996). 특히, 비행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결혼된 환경요인이 주변에 상존해 있을 것이므로, 이들에게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행변수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으로 보고 그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3. 연구문제의 설정

1)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개인은 저마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다루면서 인생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다양한 상황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마다 효율적인 적응을 위하여 충동을 통제하고 노력한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은 각자 자신의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어려운 환경에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길에 빠지기도 한다.

자아탄력성은 단순히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참여와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Tellegen, 1985), 또한 이것이 높은 사람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있어 적응에 뛰어나다(이은미,

2001). 청소년의 36%정도가 경증이상의 스트레스 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Noh, 1999). 일반 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동성친구와의 관계에 의한 것, 학업성적과 관련된 것, 선생님과의 관계에 의한 것, 부모와의 관계에 의한 것, 신체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은희, 남현주, 2008). 특히 비행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우울, 불만, 짜증, 불안, 적개심 등과 같은 형태로 표출되고 이는 곧 부적응 행동의 형태인 음주, 약물사용, 성행위, 자살, 흡연, 폭력 등과 같은 행동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Cho, 1994; Bang et al., 1996). 이와 같이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비행청소년 각자의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이를 극복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스트레스 상황을 잘 대처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보고 결과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간의 자아탄력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아탄력성을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자아탄력성의 발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과 그 반대로 발현을 돕는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유형으로 정의하고 자아탄력성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시각이다(Masten, 2001). 그런데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경우에는 전자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아탄력성은 결손 혹은 만족하지 않은 환경요인에서 오는 역경을 이겨내는 내적인 힘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자아탄력성은 한 개인의 고정적인 성격특성이 아니라 해당 사회 가치 혹은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Werner & Smith, 1991).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처한 상황이 불행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원만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민수홍, 2005)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아탄력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의 연구는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상황의 차이를 분석하기 보다는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발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시도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요소를 규명하기 위하여 그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것이다. 다시 말해, 비행청소년이 지각할 수 있는 일상 스트레스 중 어떠한 요소들이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한다면, 이와 관련된 원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친구영역”, “가정환경영역”, “교사/학교영역” 중 비행청소년에게는 어떠한 영역이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한다.

2)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

학교에서 학생이 받는 교육적 영향을 통틀어 학교생활이라고 하고,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활동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된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한다(배숙진, 1999).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 교육청과 시 교육청은 전화나 컴퓨터 통신, 면접 등을 통해 각 급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한 6만 6800건 가운데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비율이 전체의 3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1. 1월 22일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학업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쟁적인 교우관계, 차별적이거나 무관심한 교사의 태도, 학교생활에 대한 실패감과 무력감, 입시위주의 성격 우선적인 학교교육체계 등이 있다.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낮은 학업성취, 규율위반, 교사 및 동료학생들과의 관계의 결핍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좌절감을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며, 비행은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유홍준·정은경, 1999). 이렇듯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비행청소년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학교생활에 무난히 적응한다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힘이 들지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약간 있다. 대표적으로 구자은(2000)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의 적응 역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윤주와 신지연(2006)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부적응 중 교사와의 관계와 수업태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들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가정환경변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윤주 등, 2004).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도 잘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써, 그들은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이미 학교생활적응에는 원만하지 않은 부류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도 일반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현은민·박혜영, 2005) 그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의미보다, 학교생활적응 중 어떠한 요소들이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의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자아탄력성의 발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 혹은 발현을 돕는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이 그들의 학교생활 중 어떠한 부분에서 적응을 한다면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위해 학교생활적응의 세부 요소가 무엇인가를 규명한다면,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는 사전에 해당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그들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인 “학교규범준수”, “학교생활에대한흥미”, “학업/성적에대한 태도” 중 비행청소년에게는 어떠한 영역이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한다.

3) 상대적 영향력 평가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행변수들 중 자아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위계적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스트레스 하위요인을 회귀식에 투입한 다음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하여 나타나는 베타값(β)을 기준으로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가장 긍정적인 변수를 규명할 수 있다.

<연구문제 3>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자아탄력성에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별로 규명한다.

III. 연구의 방법

1. 조사의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의 표본대상인 소년원은 “대구 읍내정보통신 중·고등학교”와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이다. 대구 읍내정보통신 중·고등학교는 수용기간이 6개월인 단기과정이고,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는 수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과정으로 분류되는 소년원이다. 소년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소년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3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에서 311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4.2%) 그 중 응답을 끝마치지 못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8부를 제외한 283부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기법은 SPSS 10.0을 이용하여 표준중다회귀분석과 위계적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의 선정

1)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1=전혀그렇지않다, 4=매우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척도로서 유성경 등(2004)이 번역 한 뒤,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Block과 Kremen(1996)의 연구에서 18세와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측정했을 때, Cronbach α 는 0.76이었고, 유성경 등(2004)의 연구에서는 0.67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0.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최초 등간척도로 측정하였으나, 이를 SPSS에서 응답자별로 합산하여 비율척도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합산 후 나타날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14점에서 56점까지이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1=전혀 받지않는다, 4=많이받는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유안진과 한미현(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인용하였으며, 총 4개의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환경영역 7문항(변수명: ST1~ST7), 친구영역 7문항(변수명: ST8~ST14), 학업영역 6문항(변수명: ST15~ST20), 교사/학교영역 7문항(변수명: ST21~ST27)으로 되어 있다.

1) 변수명은 IV. 분석결과의 <표 1>에 나타나는 변수명을 의미한다.

3)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총 22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총 3개의 하위영역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항목은 7문항(변수명: SA1~SA7),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항목은 5문항(변수명: SA8~SA12), 학교 규범준수 항목은 10문항(변수명: SA13~SA22)으로 되어 있다. 그 중 부정적 진술 문항이 10문항으로, 이를 역점수로 환산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IV.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모두 남학생(n=283)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력수준은 중학생이 104명(36.7%), 인문계 고등학생 30명(10.6%), 실업계 고등학생 149명(52.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경제수준은 상 13명(4.6%), 중상 35명(12.4%), 중 107명(37.8%), 중하 83명(29.3%), 하 45명(15.9%)이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은 무학 8명(2.8), 국졸 27명(9.5%), 중졸 62명(21.9%), 고졸 127명(44.9%), 전문대졸 6명(2.1%), 대졸 18명(6.4%), 대학원이상 3명(1.1%), 아버지가 없는 응답자 비율이 32명(11.3%)의 수치를 보였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무학 6명(2.1%), 국졸 19명(6.7%), 중졸 46명(16.3%), 고졸 133명(47.0%), 전문대졸 3명(1.1%), 대졸 23명(8.1%), 대학원이상 1명(0.4%), 어머니가 없는 응답자는 52명(18.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학교를 다닐 때의 성적 분포는 상 10명(3.5%), 중상 16명(5.7%), 중 50명(17.7%), 중하 100명(35.3%), 하 107명(37.9%)으로 밝혀졌다.

2.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결과이다.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변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항 제거시 알파값(alpha if item deleted)을 이용하여,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문항을 반복

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스트레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5개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2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학교 적응유연성은 7개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5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신뢰수준은 Cronbach α 값이 0.63~0.88 사이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상관관계분석

<표 2>는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연구단위 간 상관관계의 수준 및 방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상관관계분석은 가설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가설에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들 간 관련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 주며, 판별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용한다. 판별타당성은 각 연구개념들간의 상관관계 계수의 추정치에 1을 포함하지 않으면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Anderson & Gerbing, 1988), 또한 연구단위의 상관관계 값이 해당 연구단위의 신뢰도 값보다 크지 않으면 판별타당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Gaski, 1984).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 모두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판별타당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분석결과 친구영역 스트레스와 유의수준하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정환경영역과도 부(-)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에서는 학교규범준수가 자아탄력성과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부(-)의 관련성을 보여주었고, 학교생활흥미의 경우에는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구영역 스트레스와 학교규범준수는 자아탄력성과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흥미와는 정(+)의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4. 분석결과

1)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비행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다. 먼저, 비행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친구영역은 자아탄력성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t=-6.34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은 친구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자아탄력성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다른 하위영역인 가정환경영역, 교사/학교영역은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표 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개 념	요 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설명력(%)	신뢰도 (Cronbach α)
스트레스	친구영역	ST8	.865	.783	3.457/ 15.713	.8793
		ST9	.827	.754		
		ST12	.769	.671		
		ST10	.744	.595		
		ST13	.738	.602		
	가정환경 영역	ST3	.751	.584	3.333/ 15.149	.8011
		ST6	.693	.553		
		ST1	.675	.490		
		ST5	.660	.505		
		ST4	.641	.478		
		ST2	.590	.400		
	교사/학교 영역	ST23	.743	.556	2.415/ 10.976	.7148
		ST24	.711	.539		
		ST26	.659	.559		
		ST27	.633	.433		
		ST21	.443	.320		
	학업영역	ST18	.760	.612	2.285/ 10.385	.6890
		ST15	.704	.503		
		ST17	.669	.483		
		ST20	.650	.427		
ST19		.468	.314			
학교생활 적응	학교규범 준수	SA21	.785	.619	3.031/ 20.205	.7842
		SA22	.775	.637		
		SA19	.711	.524		
		SA20	.602	.438		
		SA18	.580	.419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SA7	.741	.563	2.501/ 16.672	.7154
		SA6	.733	.540		
		SA4	.690	.526		
		SA3	.570	.434		
		SA2	.514	.392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	SA1	.487	.391	1.698/ 11.318	.6344
		SA12	.829	.694		
		SA11	.593	.422		
		SA9	.549	.417		

<표 2>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친구영역	1.51	.645	1.00								
2. 가정환경영역	1.92	.614	.418**	1.00							
3. 교사/학교영역	1.85	.658	.393**	.359**	1.00						
4. 학업영역	2.42	.665	.220**	.266**	.201**	1.00					
5. 학교규범준수	2.22	.726	.023	-.028	-.129*	-.014	1.00				
6. 학교생활흥미	2.77	.610	-.102	-.105	-.306**	.143*	.238**	1.00			
7. 학업/성적태도	1.99	.642	-.081	-.042	-.146*	-.041	.357**	.329**	1.00		
8. 자아탄력성	40.12	6.723	-.301**	-.010	.010	.082	-.120*	.171**	.087	1.00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3>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β	t값	유의확률
자아 탄력성	상 수	1.743	-	22.669	0.000
	친구영역(가설1)	.672	-.409	-6.349	.000**
	가정환경영역(가설2)	.702	.086	1.341	.181
	교사/학교영역(가설3)	.640	.114	1.821	.070
	학업영역(가설4)	.592	.127	2.161	.032*
R ² =0.134, F=10.715, p=0.000					

*p<.05, **p<.01

<표 4> 비행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β	t값	유의확률
자아 탄력성	상 수	2.026	-	18.004	0.000
	학교규범준수(가설5)	.580	-.199	-3.184	.002**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가설6)	.682	.187	3.020	.003**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 (가설7)	.674	.097	1.503	.134
R ² =0.064, F=6.401, p=0.000					

*p<.05, **p<.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간의 관계가 부(-)의 관계일 것이라는 통념을 깨는 결과이다.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부모 혹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학업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일반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에 대한 관심을 보면서 본인이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가진다면 일반학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학업영역 스트레스를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즉, 나도 일반학생들과 유사하게 학업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아탄력성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0에서 10.71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134로 13.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2)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들이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다. 먼저, 비행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규범준수는 자아탄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184). 즉, 비행청소년에게 학교내 규범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들이 자아탄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는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020). 즉, 비행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대해 흥미가 높으면 자아탄력성도 높아진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들의 교화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0에서 6.40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064로 6.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3) 위계적중다회귀분석 결과

<표 5>는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모형이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하위요인들은 자아탄력성의 변량을 13.4% 설명하고 있으며, 친구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t=-6.349). 모델 2는 모델 1에서 학교적응유연성의 하위요인들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1에 비하여 5.0% 더 설명하는 18.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모델 2의 결과, 친구영역(t=-6.204)과 교사/학교영역(t=2.534), 학교규범준수(t=-2.718),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t=3.057)가 자아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친구영역(β=-.392)이 자아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β=0.190), 교사/학교영역(β=.163), 학교규범준수(β=-.161)의 순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자아탄력성에 대한 위계적중다회귀분석 결과

변 인	모델 1			모델 2		
	표준오차	표준화된β	t값(유의도)	표준오차	표준화된β	t값(유의도)
상 수	1.743	-	22.669	2.736	-	12.794
친구영역	.672	-.409	-6.349(.000**)	.659	-.392	-6.204(.000**)
가정환경영역	.702	.086	1.341(.181)	.686	.091	1.449(.148)
교사/학교영역	.640	.114	1.821(.070)	.658	.163	2.534(.012*)
학업영역	.592	.127	2.161(.032)	.595	.085	1.452(.148)
학교규범준수				.548	-.161	-2.718(.007**)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686	.190	3.057(.002**)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				.638	.081	1.337(.182)
통계량		R ² =.134, F=10.715, p=.000			R ² =.184, F=8.883, p=.000	

*p<.05, **p<.01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고자 비행청소년이 지각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을 선행 변수로 보고 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 부산 지역의 소년원인 “대구 읍내정보통신 중·고등학교”와 “부산 오류정보산업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8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이 지각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중 친구영역에서 자아탄력성과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부(-)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은 친구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했을 때, 자아탄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 외의 가정환경영역, 교사/학교영역, 학업영역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학업영역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 정(+)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들은 학업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했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는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에 흥미를 줄 수 있는 눈높이 교육이 요구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학교규범준수는 자아탄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에게 지나친 학교 규범을 강조하면 그들의 자아탄력성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아탄력성과 관련한 그동안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일반인 혹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즉,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비행청소년과 관련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구영역스트레스와 학교규범준수는 자아탄력성과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흥미와는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전무한 바,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최초로 시도하였다는데에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행청소년들은 친구들과 관계에서 실패할 경우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친구들이 차지하는 정신적인 역할은 인생 주기 전반에서 다른 어떤 연령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기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이나 무시를 당한다든지, 놀림을 당하는 등 주변포대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여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을 저해하는 중요요소로서 또 다른 비행에 이를 잠재적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쏟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학업영역스트레스가 높으면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들이 학업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선생님, 부모, 주변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가진다면 일반학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학업영역 스트레스를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것 이고 이는 곧 나도 정상적인 학생이라는 사고를 유발시켜 오히려 자아탄력성에

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선생님, 부모님들은 이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업적 성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는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존경받는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비행청소년에게도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며, 그들의 인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을 지도하는 담임선생님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학교규범준수는 비행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나친 학교규범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에게는 학교규범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그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시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약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종단적이지 아니라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둘째, 자료 수집은 대구와 부산에 소재한 소년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 셋째, 동일한 응답자가 원인과 결과변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동일요인측정오류(common method variance)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실제변인 이상의 변인을 창출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기법인 회귀분석은 측정오차를 무시하는 분석방법으로 가설 검정결과와 상관없이 그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설명력(R^2)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본 연구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이지만 비행청소년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탐색적 성격도 가진 논문으로서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오차가 고려한 통계기법을 이용하거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정서 및 사회적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통계연보.
- 민수홍(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 학연구**, 12(2), 1-25.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 배숙진(1999).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 간의 관계**. 연세 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유성경(1999). 적응유연성 발달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개입. **청소년상담연구**, 7(1), 26-40.
- 유성경 · 홍세희 · 최보운(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 애착, 실 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유안진 · 한미현(1994).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38-57.
- 유홍준 · 정은경(1999). 학교생활 요인과 학교청소년 비행. **성균관 대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 학**, 38(1), 123-150.
- 원종익(1982). **도시의 병리현상(1)**. 국토개발연구원: 서울
- 이은미(2001).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 · 민하영 · 이영미(2004).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가정 환경변인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연차 대회 논문자료집**.
- 임은희 · 남현주(2008). 부모와의 관계 및 청소년 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3), 23-48.
- 현은민 · 박혜영(2005). 시설보호아동, 청소년기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29.
- Anderson, J. 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y Bulletin**, 103(3), 411-423.
- Bang, Y. W., Chae, J. H., Chin, T. W., & Lee, C. K.(1996). Factors affecting 6months' short-term prognosis of conduct disorder in the adolescents II- Relation to depression/anxiety and ADHD Inventory. **Konrean J Child & Adol Psychiatr**,(2), 161-165.
-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46.
- Cho, S. C.(1994). Biological studies in child and adolescent

- depression. *Konrean J Child & Adol Psychiatr*, 5(1), 28-35.
- Cicchetti, D., & Cohen, D(1995). *Development psychopathology: Risk, disorder, and adaptation*. N.Y.: John Wiley & Sons.
- Cowen, K. L., Wyman, P. A., Work, W. C., & Parker, G. R(1991). The Rochester Child Resilience Project: Overview and summary of first year find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193-212.
- Gaski, J. F(1984). The theory of power and conflict in channels of distribution. *Journal of Marketing*, 48(Summer), 9-29.
- Kloh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nr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170(5), 1067-1079.
- Masten, A. S(2001). Ordinary Magic-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Noh, K. H(1999). A study of stress, family support,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in high school students. *Chungnam Journal of Nursing Academy*, 2(1), 1-10.
- Ramanaiah, N. V., Sharpe, J. P., & Byravan, A(1999). Hardiness and major personality factors. *Psychological Reports*, 84, 497-500.
- Rutter, M(1999). Resilience concepts and finding: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y. *Journal of Family Therapy*, 21, 119-144.
- Tellegen, A(1985). Structures of moo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d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er (Eds.). *Anxiety and anxiety disorders*, 681-706, Hisdale: NJL Erlbaum.
- Werner, E. E., and Smith, R. S(1991).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Y.: McGraw-Hill.

접수일 : 2008년 12월 23일

심사일 : 2009년 01월 30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3월 23일